

이슈 | 베일 벗은 애플 '에어태그'

“차키·댕댕이...붙이면 어디든 찾는다”

블루투스 범위 벗어나도 찾기 가능
가격 3만9000원...국내 출시는 미정
삼성전자 '갤럭시 태그'와 경쟁 예고



애플이 물건에 달아두거나 놓아두면 잃어버렸을 때 아이폰으로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 '에어태그(태그)'를 선보였다. 아래 사진은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어태그가 있는 곳까지 알려주는 정밀탐색 기능.

사진제공 | 애플

“앗, 차 열쇠 어디 있지?”, “식당에 지갑 놓고 온 거 아냐?”, “제발 우리 댕댕이를 찾아주세요.”

애플의 '에어태그'가 베일을 벗었다. 애플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서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고 '에어태그'를 처음 공개했다. 물건, 반려동물 등에 달아두거나 놓아두면 잃어버렸을 때 아이폰으로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가격은 3만9000원이며 30일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판매된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전 세계 애플 기기가 찾아준다

에어태그는 블루투스나 애플기기가 보내는 신호를 이용한다. 사용자가 에어태그를 달고 설정하면 아이폰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물건이 추가된다. 지도를 통해 물건의 현재 또는 마지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다면 소리를 재생시켜 찾을 수 있다. 시리에게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된다. 초광대역 기술 기반 정밀 탐색 기능도 갖췄다. 이용자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등이 거리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준다.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나의 찾기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전 세계 10억여 대의 애플 기기가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전달해준다. 다른

사람의 아이폰이 잃어버린 물건에 달린 에어태그의 신호를 받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위치 데이터나 위치 기록은 에어태그에 저장되지 않고, 나의 찾기 네트워크 통신도 종단간 암호화로 보호된다. 원치 않는 추적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제품은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고, IP67 등급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을 갖췄다. 스피커도 내장돼 있다. 애플은 에어메스와 함께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가죽 액세서리 '에어태그 에어메스'도 선보였다.

카이엔 드렌스 월드와이드 아이폰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뛰어난 디자인, 탁월한 위치 추적 기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을 갖춘 에어태그는 애플 생태계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아이폰의 활용도를 확장시켜 줄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와 경쟁

애플의 에어태그는 앞서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와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1월 선보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도 열쇠나 반려동물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에 부차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표시해주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주변 다른 갤럭시 스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

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도움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는 16일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도 선보였다. 초광대역 기술을 더해 보다 더 정확한 위치 탐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갤럭시S21 울트라' 등 초광대역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선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 앱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빅스비를 이용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의 가격은 3만9600원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새로운 색상의 '아이폰 12' 등도 선보였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인텔 프로세서가 아닌 독자 설계한 'M1'칩을 처음 적용했고, 5G도 지원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478m에서 멍 때리기”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하늘명존'을 새롭게 오픈했다. 지진 마음에 위로와 힐링을 주는 '마음방역'의 일환으로 '멍 때리기' 문화를 접목한 시설이다. 478m의 서울스카이 전망대 118층 유리바닥 스카이트랙에 2.4m의 수조를 설치했다. 수조 속 물고기들과 한강변 도로 위 차량들이 어우러진 색다른 '하늘명' 체험이 가능하다.



현대차가 센슈어스 디자인을 2.0 모델까지 확대 적용한 '2021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했다. 전면부가 가장 돋보이는데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와이드 그릴과 에어인테이크홀, 에어덕트 등으로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차 '2021 쏘나타 센슈어스' 출시

가솔린 2.0 모델에 '센슈어스 디자인' 확대 적용
엔진별 트림 각각 3종...일부 편의사양 기본 탑재

현대차가 기존 쏘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모델에 적용해 호평을 받은 센슈어스 디자인을 2.0 모델까지 확대 적용한 '2021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했다.

쏘나타 센슈어스는 현대차의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구현한 쿠페 스타일 스포츠 세단으로 일반 모델보다 더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 디자인이 가장 크게 차별화된다. 보석의 원석을 기하학적 형태로 깎아낸 듯한 형상의 '파라메트릭 주얼(Parametric Jewel)' 패턴을 적용한 유광 블랙 컬러의 와이드한 그릴을 적용했다. 와이드하게 뻗은 하단 에어인테이크홀과 공격을 고려한 에어커튼 등을 적용했으며, 전면 범퍼 사이드에는 에어덕트를 넣어 한층 역동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쏘나타 센슈어스 전용 블랙 유광 아웃사이드 미러와 리어 디퓨저도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는 요소다.

현대차는 2021 쏘나타 센슈어스 엔진 타입별 트림을 각각 3종(모던, 프리미엄 플러스, 인스퍼레이션)으로 단 순화하고 일부 선택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가솔린 2.0 모델 모던 트림의 경우 버튼시동&스마트 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스마트 트렁크, 후방 모니터 등 고객 선호 편의사양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 등을 기본적용했다. 2021 쏘나타 센슈어스 판매 가격은 2547만 ~ 3635만 원(가세소 3.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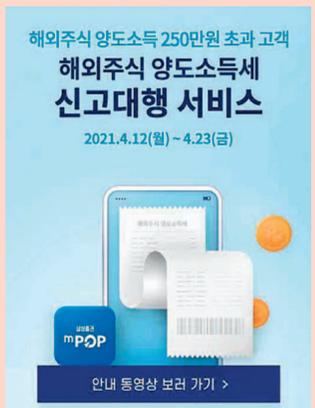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일까지 삼성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mPOP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반드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 고객 중 2020년 해외주식투자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고객 수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

히 삼성증권에서 매대한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까지 통합해 250만 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고객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은 2020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뿐 아니라 랩(Wrap)서비스, 신락 등을 통한 해외주식 양도이익도 포함한다. 해외주식 매도금액(양도가액)에서 매수금액(취득가액)과 매매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된 매매차익(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사진제공 | 삼성증권

23일까지 모바일·온라인서 간편 신청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대상

할 양도소득세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돼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31일이며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5월 28일까지 납부금액이 산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2020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상계가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손익상계 대상 주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욱 기자 jjay@donga.com

사이버보안협회·구로서, 청소년사이버범죄 예방 협력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왼쪽)과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사진제공 | 사이버보안협회

20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서울 구로경찰서가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와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및 피해자 지원 등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로경찰서에서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식은 임경우 구로경찰, 여성청소년과 김재정 과장 등 경찰 관계자 및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 조준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홈플러스, 카버코리아 출신 이재훈 신임 대표 선임



홈플러스가 21일 이재훈(사진) 전 카버코리아 대표를 신임 대표(사장)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펄스, 웨빙플라워 미국 본사를 거쳐 피자헛코리아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개발책임자(CDO),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다. 이후 바이더웨이와 KFC코리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고, 2018년부터 화장품 브랜드 AHC로 알려진 카버코리아 대표를 맡았다. 이 신임 대표는 5월 중 취임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 신임 대표가 리테일과 소비재 분야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유통 기업으로 나아가는 홈플러스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IT기업들 '월드IT쇼'서 뉴노멀 서비스 선봬

프리미엄TV부터 로봇까지 다양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WIS 2021)에 참가해 '뉴노멀' 시대 혁신 서비스를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네오 QLED

D 8K' 등 프리미엄 TV와 냉장고 등 가전 품으로 구성된 '비스포크 홈', '갤럭시 S21' 시리즈 등 최신 모바일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그램', '울트라기어' 등 IT 제품과 올레드 TV, 커넥티드카, 로봇 서비스 솔루션(사진), 공간 인터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등을 소개한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사피온'과 함께 방역을 돕는 로봇,

'누구'가 탑재된 이어셋 '누구 버즈' 등 AI 기술을 선보였다. '5G 메타버스 시네마'와 '점프스튜디오' 가상현실(VR)기기 '오콜러스 퀘스트2' 등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도 만날 수 있다. KT는 '와이파이 6E' 기술과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 최근 광고로 화제가 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를 출품했다. 스마트 건물 관리와 스마트 시티 서비스도 살펴볼 수 있다.